

18~20세기초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유행과 전파*

장 효 진 **

- I. 머리말
- II.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연원과 제작배경
- III.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조형 특징
- IV.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조선·일본 전파와 의의
- V. 맺음말

I. 머리말

靈芝草花文 靑畫白磁는 기면에 청화안료로 공간을 일정하게 구획하고, 그 안에 도안화된 영지와 초화문양을 번갈아 장식한 것이다. 주문양인 영지는 고대부터 불로장생, 기사회생의 의미로 인식되어 왔는데, 희귀할 뿐 아니라 채집 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길상물로 여겨져 각종 공예의 문양에 애용되었다. 한편 영지문과 짝을 이루는 초화문은 차나무 꽃, 동백꽃, 치자꽃 등 의견이 분분해 그 실체가 불명하여, 도안화된 초화류라고 추측된다.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명대 선덕연간(1426~1435) 관요양식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청대 초기에는 경덕진 민요에서도 활발하게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근대기까지 경덕진을 비롯한 복건 일대 남방민요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이에 현전하는 수량이 적지 않아 일부 소장가들 사이에서 청대자기라는 명목으로 수집과 감상이 이루어졌으나, 민간용 도자라는 성격 때문에 중국도자

* 이 글은 필자의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流行과 傳播: 18-20世紀初 朝鮮과 日本을 中心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를 기초로 일부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사 연구에서 주제로 주목받지 못하였다.¹

그러나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그 연원이 관요양식에 있으므로 관요양식의 민간 유출이라는 관점에서 관요와 민요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경덕진 뿐 아니라 복건 등 남방민요에까지 유행한 배경과 경로를 살펴 경덕진과 타 지방 요장 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또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중국산의 출토가 확인되고 각 지역에서 모방 생산한 사례가 있어, 동아시아 도자교류사의 일면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록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청대 민간에 새롭게 출현하여 유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살펴보고, 경덕진 및 복건 민요 생산품의 양상을 새로운 자료를 통해 지역별 조형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소비유적에서 출토되는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정확한 계통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이를 모방 제작한 주체와 소비 양상을 살펴 각 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II.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연원과 제작배경

1.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연원

선행연구 가운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기원이 1983년 경덕진 주산 어기창유적 명대 선

¹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에 대한 중국의 연구는 劉新園이 기원에 관해 주목한 것이 거의 유일하며, 江建新이 劉新園의 기원설을 인용하며 경덕진 생산품과 조선후기 청화백자의 영향관계를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다. 劉新園, 「景德鎮明御廠故址出土永樂、宣德官窯瓷器之研究」, 『景德鎮珠山出土永樂宣德官窯瓷器展覽』(香港市政局, 1989), pp. 50-51; 同著, 「明宣宗與宣德官窯」, 『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瓷器』(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8), pp. 180-182; 江建新, 「景德鎮宋元時期瓷器外銷與新安沉船中的瓷器—兼論高麗青瓷和朝鮮白瓷青花與景德鎮窯之關係」, 『中國古陶瓷研究』¹⁴(紫禁城出版社, 2008), pp. 174-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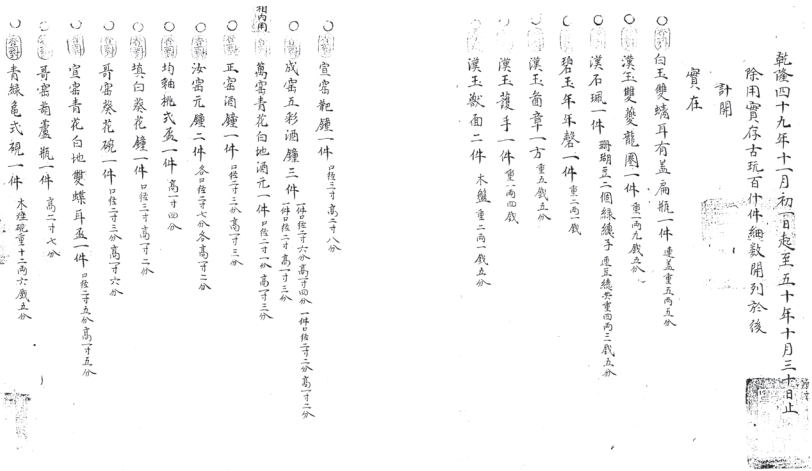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국에서 출토된 중국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생산지를 추적하거나, 영향관계에 주목하여 진행한 연구가 일부 있다. 특히 1999년 日本貿易陶磁研究會의 제19회 심포지움에서 일본에서 출토된 청대자기의 현황과 유입배경, 그리고 일본도자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성과가 정리되어 주목할 만하다. 또 2013년 9월 東京 출토 무역자기를 주제로 한 日本貿易陶磁研究會의 제34회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東京 출토 청대자기에 관한 새로운 보고가 있었으며 정식 자료집은 2014년 출간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京都國立博物館에서 일본에서 출토 및 전세된 청대자기와 관련된 전시가 개최되었다. 金美景,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清代 磁器의 影響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p. 90-92; 日本貿易陶磁研究會, 『貿易陶磁研究』¹⁹(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9); 京都國立博物館, 『魅惑の清朝陶磁』(読売新聞社, 2013).



도1 <백자청화초화문쌍접이배>, 명 선덕(1426~1435), 구경 8.5cm, 저경 4.0cm, 높이 4.9cm, 경덕진도자고고연구소(『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瓷器』(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8), 도13)

덕연간(1426~1435) 폐기층에서 출토된 <백자청화초화문쌍접이배>(도 1)로 밝혀진 바 있다.² <백자청화초화문쌍접이배>는 높이 4.9cm의 소형 기물로 외면 상단에 장식된 귀 모양이 나비형태이며, 기면 내외에 일정한 공간을 구획해 도안화된 초화문양을 시문하였다. 현재까지 공개된 유물 가운데 이와 동일한 명대 유물은 알려진 바 없으나, 造辦處³ 문서 가운데 실재하는 골동 목록을 기재한 『金銀銅磁玉瑪瑙木石古玩件數實在清冊』의 건륭49년(1784) 11월부터 50년(1785) 10월까지의 기록 『除用

實存古玩百什件細數開列於後』에 기재된 ‘宣窯青花白地雙蝶耳盃一件 口徑二寸五分 高一寸五分’⁴이 이와 동일한 계통으로 간주된다(도 2). 기록에 등장하는 ‘宣窯青花白地雙蝶耳盃’의 문양



도2 『金銀銅磁玉瑪瑙木石古玩件數實在清冊』(中國第一歷史檔案館·香港中文大學文物館, 『清宮內務府造辦處檔案總匯』8(人民出版社, 2005), pp. 546, 549)

2 劉新園이 기원을 이와 같이 꼽으며 청대 민간에서 유행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이 문양이 변형되어 제작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劉新園, 앞의 논문(香港市政局, 1989), pp. 50-51; 同著, 앞의 논문, 『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瓷器』(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8), pp.180-182.
 3 청 황실 내무부에 소속된 造辦處는 황가를 비롯한 어용 기물의 제작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기구로, 황제가 파견한 내무부 大臣이 관리하였다. 강희연간(1662~1722) 養心展에 세워졌으며, 강희30년(1691) 慈寧宮 남측으로 이동하여 1924년 溥儀가 출궁하기까지 200여 년간 존속하였다. 中國第一歷史檔案館·香港中文大學文物館, 『清宮內務府造辦處檔案總匯』8, 영인본(人民出版社, 2005), p. 1.
 4 中國第一歷史檔案館·香港中文大學文物館, 위의 책, 영인본(人民出版社, 2005), p. 549.

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함께 표시된 크기를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백자청화초화문쌍접이배>와 일치하며⁵ 기종 또한 쌍접이배로서 동일하다. 또 현재까지 전해지는 청궁 전세품으로 미루어 보아 청화백자 쌍접이배가 선덕연간(1426~1435)에는 드물고 귀한 기물이었을 것이므로 청대까지 비장하여 기록에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술한 출토품과 기록에 등장하는 두 점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도3 <백자청화영지문잔탁>, 명 영락(1403~1424), 구경 18.7cm, 저경 12.6cm, 높이 2.1cm, 북경고궁박물원(『中國陶瓷全集: 明』(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도32)



도4 <옥교룡문탁배>, 명, 구경 7.4cm, 높이 4.7cm, 북경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全集:玉器(中)』, 商務印書館: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6), 도195)

한편 <백자청화초화문쌍접이배>와 한 세트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물이 있다. 청 황실 전세품으로 영락연간(1403~1424)에 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백자청화영지문잔탁>(도 3)인데, 역시 꽃잎 모양의 윤곽선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공간 안에 문양을 장식하였다. 쌍접이배의 분할된 공간 안에 도안화된 초화문양이 장식되었다면, 잔탁에는 도안화된 영지문양이 장식되었다. 그리고 잔을 올려놓는 잔좌 부분의 지름은 약 4.7cm로 추정되는데, 쌍접이배의 저경이 4.0cm로 잔탁의 크기가 잔을 올려놓기에 매우 적절하다. 아울러 청 황실 전세품으로 알려진 명·청시기 옥기 가운데 <옥교룡문탁배>(도 4)와 같은 쌍접이배 탁잔이 적지 아니 확인되어 <백자청화초화문쌍접이배>와 <백자청화영지문잔탁>이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한 세트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드물게 청대 옹정연간(1723~1735)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백자청화영지초화문쌍접이배>(도 5)가 경매시장에 등장하였는데,⁶ 기면

⁵ 『金銀銅磁玉瑪瑙木石古玩件數實在清冊』에 기록된 ‘宣窯青花白地雙蝶耳盃’의 크기를 현재의 cm로 환산하면 높이는 약 4.95cm, 구경 약 8.25cm이다. 여기장유적 선덕연간(1426~1435) 폐기층에서 출토된 <백자청화초화문쌍접이배>는 높이가 4.9cm, 구경 8.5cm, 저경 4.0cm로, 두 기물의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⁶ 2006년 11월 23일 北京匡時國際拍賣有限公司·北京中漢拍賣有限公司 연합경매에서 RMB 104,500 원에 낙찰되었으며, 이와 매우 유사한 옹정연간에 제작된 <백자청화영지초화문쌍이배>가 2003년 11월 26일 中國嘉德에서 RMB 187,000 원에 거래된 바 있다. 北京匡時國際拍賣有限公司·北京中漢拍賣有限公司, 『中國古代瓷玉工藝品傳場』(2006.11), 도. 1386; 古董拍賣年鑑編委會, 『2004古董拍賣年鑑·瓷器』(湖南美術出版社, 2004), p. 52.



도5 <백자청화영지초화문쌍이배>, 청 옹정 (1723~1735), 높이 4.0cm, 北京匡時國際拍賣有限公司·北京中漢拍賣有限公司 연합경매(2006년11월23일)(『中國古代瓷玉工藝品傳場』(2006), 도1389)

에 영지와 초화문양이 번갈아 장식된 양상이 <백자청화초화문쌍접이배>의 초화문양과 <백자청화영지문잔탁>의 영지문양이 혼합되어 나중에 두 문양이 번갈아 시문된 결과가 아닌지 추정된다(표 1). 따라서 청 황실에서 명대 관요품을 지속적으로 소장했던 동시에 명대 관요양식이 반영된 새로운 궁정자기를 생산했으며, 이러한 흐름속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제작이 증가했을 것이다.

표 1 명·청 관요품의 문양 세부

명(15세기 초중반) 관요품	청(18세기 초반) 관요품

2. 관요양식의 민간 유출과 경덕진 민요자기의 확산

명대 선덕 관요양식에 기원을 두는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청대 민간에 등장하게된 것은 관요 생산구조의 변화와 낙선품을 賞與 혹은 민간 판매로 처리하는 과정 중, 관요양식이 민간에 자연스럽게 유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대 초기, 관요에서 생산된 자기가 민간에 유출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경덕진 주산

이기창유적의 명대 초기층 출토품이 증명하듯,⁷ 낙선품을 비롯해 필요 이상으로 생산한 완성품 까지도 파손하여 관요 내부에 매장하였으며,⁸ 관요양식의 청화백자를 판매하거나 관리 저택에 보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⁹

그런데 16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관요의 폐쇄적인 생산방식과 낙선품 처리방법에 변화가 일어났다. 가정연간(1522~1566) 관요는 낙후된 생산 방식과 무역 착취 개선을 위하여 관요와 민요가 제작 공정을 분담하는 官搭民燒를 실행하였고,¹⁰ 관·민이 협동 생산하는 과정 중 관요양식이 민간에 유출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또 만력13년(1585)에는 낙선품의 민간 판매라는 파격적인 처리방법이 거론되었는데,¹¹ 적지 않은 수량의 낙선품을 모두 폐기하는데 따르는 재정적 곤란 때문에 결정된 사항으로 생각되며, 이같은 변화는 관요양식의 민간 유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청대에 이르러서도 관·민이 협동 생산하고, 관요 낙선품을 민간에 판매 처리하는 방식이 지속되면서 관요양식의 민간 유출 가능성은 계속되었다. 唐英의 저서 및 상주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청대 어요창에서 나온 약 50% 이상의 낙선품을¹² 황제의 賞與用으로 대비시

7 경덕진 어요유적 발굴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香港藝術館, 『景德鎮珠山出土永樂宣德官窯瓷器展覽』(香港市政局, 1989); 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徐氏藝術館, 『成窯遺珍: 景德鎮珠山出土成化官窯瓷器』(徐氏藝術館, 1993); 鴻禧美術館, 『景德鎮出土明初官窯磁器』(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6); 鴻禧美術館, 『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磁器』(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8); 炎黃藝術館, 『景德鎮出土元明官窯磁器』(文物出版社, 1999); 首都博物館, 『景德鎮珠山出土永樂官窯磁器』(文物出版社, 2007);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 『江西景德鎮明清御窯遺址發掘簡報』, 『文物』2007-5(文物出版社, 2007); 權奎山, 『景德鎮明清御窯遺址의 考古發見和 研究』, 『故宮博物院院刊』2013-3(紫禁城出版社, 2013), pp. 6-19.

8 낙선품 처리 및 매장 방법이 시기에 따라 달랐음이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졌는데,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權奎山, 『江西景德鎮明清御窯(窯)廠落選品處理的 考察』, 『文物』2005-5(文物出版社, 2005), pp. 54-63; 同著, 앞의 논문(2013), pp. 10-12.

9 『明英宗睿皇帝實錄』卷19 正統3年(1438) 12月 “命都察院出榜 禁江西瓷器窯場燒造官樣青花白地瓷器于各處貨賣及饋送官員之家 違者正犯處死 全家謫戍口外”

10 王宗沐, 『江西大志·陶書』중 “陶監有官 先是中官一員專督 嘉靖九年 裁格…官匠因循 管廠之官乃以散之民窯 歷年相仿”에 근거하여 가정연간에 官搭民燒가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趙宏, 『“官搭民燒”考』, 『故宮博物院院刊』1(紫禁城出版社, 1996), pp. 81-82; 劉毅, 『論“官搭民燒”與明嘉靖民窯青花發展及藝術新風』, 『中國陶瓷』47, (中國輕工業陶瓷研究所, 2011), pp. 83-85.

11 王光堯는 『皇明經世文編·陳恭介公奏疏·爲欽奉聖旨疏乞免難成燒造疏』중 “爲天時亢旱 推廣聖慈 瓷器既燒造難成 內屏風 棋盤 燭臺 花瓶 新樣大缸 燒成有好的 著揀進 不堪的聽彼變賣”에 근거하여 만력13년(1585)부터 정부가 낙선품 판매를 인가하였지만, 당시 어기창이 관리를 방임하며 더 이상 낙선품 처리를 하지 않아, 실제로 판매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王光堯, 『明代宮廷陶瓷史』(紫禁城出版社, 2010), p. 146.

12 청 황실 기록의 통계에 따르면 건륭8년(1743) 58.9%, 도광4년(1824) 63.6%, 함풍원년(1851) 67.8%, 광서10년(1884) 71%의 낙선품이 존재하였다. 鐵源, 『陶瓷의故郷-江西』, 『江西藏瓷全集·清代(上)』(朝華出版社, 2005), pp. 22-23.

키거나,¹³ 북경에 올리지 않고 값어치를 변경하여 현지인 경덕진에서 판매하도록 하였다.¹⁴ 또한 唐英이 黃器 및 五爪龍 문양이 있는 낙선품 처리에 대해 상주하자, 심지어 황권을 상징하는 五爪龍 문양 낙선품에 대해서도 외부에 항시 있으니 역시 판매하라고 명하여,¹⁵ 15세기 중반경 경덕진에서 청화백자를 비롯한 각종 색유자기를 사적으로 제작 할 경우 엄형으로 다스렸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¹⁶ 따라서 황권을 상징하는 문양을 비롯해 각종 관요양식이 18세기경에 이르면 이미 민간에 제약 없이 통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래 관요에서 비롯된 영지초화문 양식이 민간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대 초기 먼저 경덕진 민요에서 유행하였던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이후 복건을 비롯한 남방일대 요장에서도 활발히 제작되었는데, 경덕진 양식이 타 지역에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덕진 자기가 전국으로 유통되며 자기시장을 독점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경덕진에 모인 전국 각지 상인들의 수선스러운 분위기는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浮梁縣誌·陶陽竹枝詞』의 주석에 ‘경덕진에는 천하의 상인이 통하며, 상인이 끊이지 않는다’고 풀이되어 있고,¹⁷ 명대 소설이지만 馮夢龍의 『醒世恒言』의 내용 중에도 ‘경덕진 백성들이 요업에 종사하며, 사방에서 상인들이 몰려와 경덕진 도자기를 소주, 항주 등 지역으로 싣고 가 판매한다’¹⁸는 상세한 묘사가 당시 모습을 짐작케 한다.

경덕진에 모인 여러 지방 출신 상인들은 출신지역 별로 각자 세력을 뭉쳐 도자기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며 본인의 고향이나 인근지역으로 판매하였으니,¹⁹ 강서자기가 각 지역에 유통된 사

¹³ 藍浦, 『景德鎮圖錄·廠器歲解運數例(附)』, 『陶成紀事載 廠器陶成 每歲秋冬二季 僱覓船隻夫役 解送圓琢器六百餘桶…其選落之次色 尚有六七千件 一併裝桶解京以備賞用…』; 同著, 林相烈 역, 『譯註景德鎮圖錄』(일지사, 2004), p. 91.

¹⁴ “今于乾隆七年十二月十二日接到養心殿造辦處來文, 內有傳奉本年六月二十三日諭旨: 嗣後脚貨 不必來京 即在本處變價” 唐英, 『請定次色瓷器變價之例以杜民窳官濫摺』, 『唐英全集』4(學苑出版社, 2008), pp. 1182-1183; 이와 동일한 내용이 『粵海關監督尤拔世奏折』에도 기록되어 있다. 乾隆七年 壬戌 六十一歲 六月 旨令唐英 “御廠燒造之脚貨 瓷器 不必送京 即在本處變價處理” (見『粵海關監督尤拔世奏折』), 傅振倫·甄勵, 『唐英瓷務年譜長編』, 『景德鎮陶瓷』(景德鎮市瓷局, 1985), p. 38.

¹⁵ 건륭8년(1743) 2월 20일 硃批: “黃器如所請行 五爪龍者 外邊常有 仍照 原議行” 唐英, 위의 책(學苑出版社, 2008), pp. 1182-1183.

¹⁶ 『明英宗睿皇帝實錄』 卷161 正統13年(1448) 12月 “禁江西饒州府私造黃紫紅綠青藍白地青花等瓷器 命都察院榜諭其處有敢仍冒前禁者 首犯凌遲處死 籍其家貲 丁男充軍 邊衛 知而不以告者 連坐”

¹⁷ 鄭廷桂, 『浮梁縣誌·陶陽竹枝詞』 卷21 藝文, “九域瓷商上鎮來 牙行花色照單開” 主云: “然鎮瓷通商天下 迄今來鎮販者絡繹不絕” 劉朝暉, 『明清以來景德鎮瓷業與社會』(上海世紀出版集團 2010), p. 76.

¹⁸ 馮夢龍, 『醒世恒言』 卷34 “話說江西饒州府浮梁縣 有景德鎮 是個馬頭去處 鎮上百姓 都以燒造瓷器爲業 四方商賈都來載往蘇杭各處販賣 盡有利息” 劉朝暉, 위의 책(上海世紀出版集團 2010), p. 76.

¹⁹ 경덕진 자기가 전국으로 유통되는데 여러 지방상인 중 특히 휘주 출신 상인의 역할이 컸다. 휘상이 상업활동을 위해 전국으로 이동하려면 먼저 장강에 도달해야 했는데, 부양을 거쳐야 했으므로 장기간 경덕진에 머물며 요업 등 각종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지방에 경덕진 자기를 팔기 위한 중개구매 활동을 하였다. 曹國慶, 『明清時期景德鎮的徽州瓷商』, 『江淮論壇』2(安徽省社會科學院, 1987), pp. 58-59.

실은 중국 일부 지방지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표 2).²⁰ 이와 같이 전국 상인들에 의해 경덕진 자기가 지방 곳곳에서 소비되었고, 지방 민간 요장에 경덕진 양식의 자기가 출현하는데 이를 유통시킨 지방상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술한 경로로 전국에 유통된 경덕진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문양 소재가 길상적이며 제작시 시문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남방일대 민간 요장에서 민수용으로 대량 제작되며 유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중국 지방지에 기록된 강서자기 유통에 관한 내용

시기	유통지	내용	출처
가정연간 (1521~1566)	河北 河間	“河間行貨之商…其諸販瓷器, 漆器之類, 至自饒州, 徽州…”	『河間府誌』 卷7 風俗
가정연간 (1521~1566)	山東 高唐	“按市…高唐地瘠, 土產靡出, 僅水陸之便, 故…至磁, 漆諸器自饒, 徽…”	『高唐州誌』 卷3 地理
도광4년	山東	“臨清關居汶, 衛兩河之中, 全賴江廣紙張, 茶葉, 磁器, 江浙綢緞等貨販運北上, 直隸山東雜豆赴南售賣, 尙始流通, 始克征稅數額…”	『鈔檔』署山東巡撫琦善道光4年2月27日折
광서33년	湖南 邵陽縣	“(清光緒末年, 湖南寶慶府邵陽縣)……入境之貨……瓷器出自江西……”	『邵陽縣鄉土誌』 卷4 地理 商務
1920년	安徽 英山縣	“(民國九年前後, 安徽英山縣)……瓷器自九江輸入……”	『英山縣誌』卷8 實業誌 商務
1936년	河北 涿縣	“(民國二十四年, 河北涿縣)…瓷, 江西, 唐山, 磁縣產, 運銷本縣, 平均價格由五分至五元.”	『涿縣誌』第3編 經濟第1卷 實業
1944년	江蘇 興化縣	“(民國以來, 江蘇興化縣)縣境商業……: 油坊, 典當, 京廣, 南貨諸業, 咸, 同以後大半客籍主辦, 其餘鎮江之煙, 江西之瓷器, 湖北之杉木, 安徽之茶葉, 香料, 河北, 山西之漆酒尤著……”	『興化縣續誌』 卷4 實業誌

Ⅲ.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조형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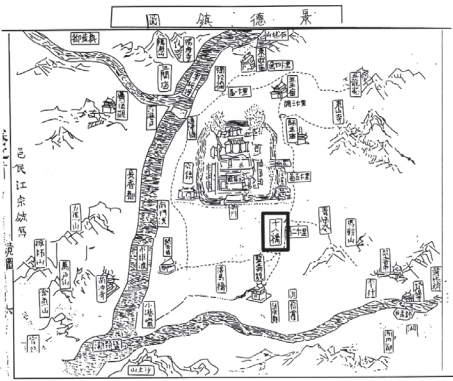
1. 경덕진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특징

현재까지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를 생산한 경덕진 민요의 정식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

²⁰ (표 2)는 劉朝暉, 앞의 책(上海世紀出版集團 2010), pp. 79-80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도 6 <청화백자편>, 경덕진 十八橋遺跡 원~명대 층위 출토, 경덕진도자고고연구소『陳昌蔚紀念論文集』3(陳昌蔚文教基金會, 2006), p. 121)



도 7 <景德鎮圖>, 강희21년(1682)『浮梁縣志』木刻版(『陳昌蔚紀念論文集』3(陳昌蔚文教基金會, 2006), p. 127)

았지만, 경덕진도자고고연구소가 경덕진 내 건설 기초공사 중 발견된 요업유적 퇴적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十八橋遺跡(현, 中華南路 商城일대) 원~명대 퇴적층(도 6)과 勝利路遺跡(현, 新華瓷廠) 명대 후기~청대 초기 퇴적층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편이 발견되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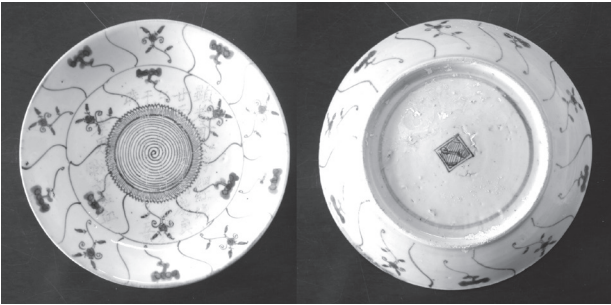
十八橋遺跡은 강희21년(1682)에 제작된 <景德鎮圖>(도 7)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기창 인근 남쪽에 위치하였다. 현재 이 일대는 점포와 노점이 즐비해 있으며 中華南路라 불린다. 十八橋遺跡 출토품을 살펴보면, 내저에 輪形의 화회문을 중심으로 영지와 초화문 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굽 안쪽에는 원권 없이 방형의 관지가 있다. 경덕진도자고고연구소는 이 도편이 원~명대 층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술하였지만, 현재까지 조사로는 명대 중후기 대표 민요라 할 수 있는 觀音閣窯址²²에서 명대에 생산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발견이 보고된 바 없고, 발표된 보고서 또한 약식이므로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명확한 상한시기를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1988년 江西省 萬安水庫 清乾隆六十年(1795)墓에서 출토된 <백자청화영지초화문접시>(도 8)를 들 수 있다.²³ 당시의 습속에 따라 피장자의 생전 사용품이 부장된 것으로 보이며, 기물 내저에 1738년에 출생하여 1795년에 사망한 피장자의 신상이 짐작되어 생산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접시는 초화문양, 방형의 제작공방 기호 등 특징으로 경덕진

²¹ 江建新, 「景德鎮窯業遺存的考察與研究」, 『陳昌蔚紀念論文集』3(陳昌蔚文教基金會, 2006), pp. 120-122.
²²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 「江西景德鎮觀音閣明代窯址發掘簡報」, 『文物』2009-12(文物出版社, 2009), pp. 39-58.
²³ 中國出土瓷器全集編委會, 『中國出土瓷器全集』14(科學出版社, 2008), p. 239.



도 8 <백자청화영지초화문접시>, 18세기, 구경 15.9cm, 저경 9.6cm, 높이 8.5cm, 江西省萬安水庫 건륭60년(1795)묘 출토, 강서성문물고고연구소(『中國出土瓷器全集』14(科學出版社, 2008), p. 239)



도 9 <백자청화영지초화문접시>, 18세기 후반~19세기, 구경 19.2cm, 저경 11.3cm, 높이 3.3cm, 전 江西省 曾氏(1810~1857)묘 출토, 曹建文 소장(저자 촬영)

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민간에 전세되는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가운데 필자가 실견한 민간 소장품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내저중심 문양으로 輪形文, 나선문, 초화문을 확인하였으며, 나선문과 초화문의 경우 둥근 화판을 두르기도 하였다. 내저중심에 윤형문이 시문된 접시는 옹정연간(1723~1735) 생산품이라고 전해지는데, 전체 문양이 정세한 편으로 ‘成化年制’ 관지가 있다. 이 외에는 모두 굽 안에 방형의 제작공방 기호가 쌍권 안에 시문되었다.

상술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경덕진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내저중심에 나선문

민요에서 18세기 중후반경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 소장품 중에서도 기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9),²⁴ 내면에 점각된 피장자의 신상으로 하한연대가 1857년인 것을 알 수 있다.²⁵ 내저 중심에는 화판을 두른 나선문이 시문되었으며, 굽 안쪽에 방형 관지를 시문해 전형적인 청대 경덕진 민요 생산품의 특징을 보인다. 피장자의 생몰년 및 문양양식을 보아 18세기 후반~19세기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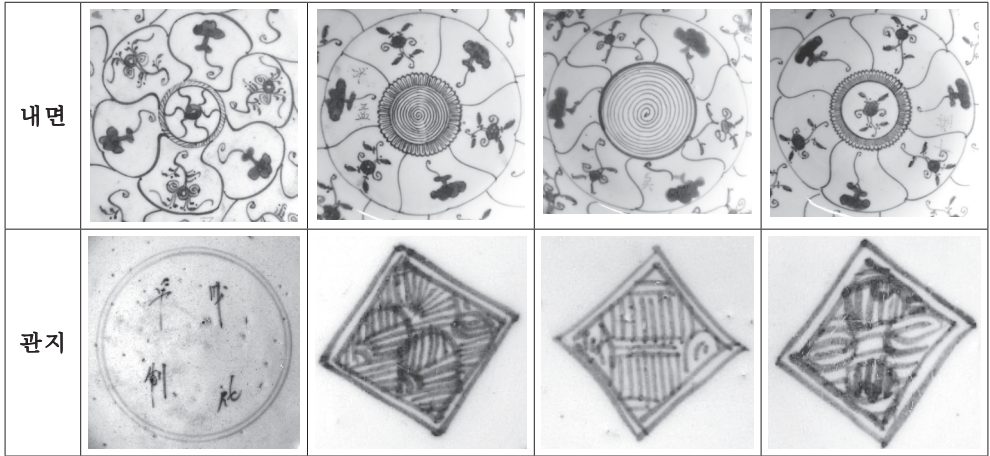
한편, 청대 경덕진산으로 전해지는 개인 소장품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²⁶ 내저중심 문양의 형식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청대 경덕진 민요산 영

²⁴ 이 유물은 曹建文(景德鎮陶瓷學院 設計藝術學院 史論系 교수)의 개인 소장품이다. 유물 촬영과 게재에 도움을 주신 曹建文 교수께 지면을 통해 感謝드린다.

²⁵ 장효진,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流行과 傳播: 18~20世紀初 朝鮮과 日本을 中心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 23~25.

²⁶ 주 24와 동일함.

표 3. 경덕진 민요산 <백자청화 영지초화문 접시>, 曹建文 소장



흑은 초화문을 장식하고, 의미가 불명한 곡선과 직선이 채워진 방형의 제작공방 기호를 관지형태로 시문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양식적 특징은 다음 절에서 복건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와 비교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민요에서 생산이 시작된 시기는 十八橋遺跡 원-명대 층위에서 발견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르면 명대 후기로 간주되나, 확정짓기에는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옹정연간(1723~1735)을 전후 한 시기에는 확실히 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18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성행하며 대수용 민간백자로써 광범위하게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2. 복건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특징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복건 내에서 泉州市 德化縣,²⁷ 安溪縣²⁸ 전체를 포함하여, 그 영향으로 漳州市 華安縣,²⁹ 南靖縣,³⁰ 南平市 光澤縣³¹ 일대 민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를 비롯한 경덕진 민요양식이 복건에 전파된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²⁷ 陳建中, 『德化民窯青花』(文物出版社, 1999); 同著, 『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德化窯(上)·(下)』(福建美術出版社, 2005); 曾凡, 『福建陶瓷考古概論』(福建省地圖出版社, 2001).

²⁸ 吳藝娟, 『安溪窯與海上絲綢之路古陶瓷初探』, 『中國古陶瓷研究』14(紫禁城出版社, 2008), pp. 248-258.

²⁹ 吳其生·李知安, 『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華安窯』(福建美術出版社, 2005).

³⁰ 吳其生, 『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南靖窯』(福建美術出版社, 2005).

³¹ 黃福蓮, 『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光澤窯』(福建美術出版社, 2005).

경덕진 자기가 각 지방으로 유통된 것 외에, 장인 이주 또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대 가정연간(1522~1566) 기록이긴 하나 『安溪縣誌』 土產條 磁器 중 복건 안계현에 외지에서 온 장인들이 요업에 종사하였다고 전해지며,³² 건륭12년(1747) 『德化縣誌』 邊域誌 風俗條에도 각종 수공업에 외지인이 종사하였다³³는 내용이 있어, 외지 장인에 의해 외부양식이 복건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가정연간(1522~1566) 官搭民燒가 시행되며 민요에게 부여된 과중한 의무와 강서지역에서 일어난 잇따른 전쟁과 전염병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부딪힌 경덕진 일대 도공들이 閩南(복건성 남부지역으로 하문, 장주, 천주 일대를 말함)으로 이주하여, 경덕진 양식이 남방 민간요장으로 전파되는데 요업과 관련된 인력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³⁴

복건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청대 중기 이후에 생산된 접시와 완이 대부분인데, 이를 제작한 대표적인 민간 요장과 드물게 기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덕화 潯中窯系에서 수습된 <백자청화영지초화문완>(도 10)을 살펴보면, 내면 중심에 작은 나선문을 시문하고 울동감이 느껴지는 윤곽선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그 안에 영지와 초화



도 10 <백자청화영지초화문완>, 18세기 후반~19세기, 구경 13.0cm, 저경 7.0cm, 높이 7.0cm, 德化 寶寮格요지 수습(『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德化窯(下)』(福建美術出版社, 2005), p. 124)

문양을 번갈아 장식하였다. 외면에는 저부에 원권을 두르고 그 위에만 문양을 시문하였으며, 굽 안쪽에는 ‘슴泉’이 써져있는데 이를 비롯하여 ‘德源’, ‘利’ 등 제작공방을 나타내는 한자를 관지로 시문하였다.³⁵

덕화요 영향권에 있었던漳州 일대 민간 요장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를 제작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본적인 구도는 덕화현 내에서 수습된 것과 일치하나 문양표현은 더욱 간단해졌다. 장주華安窯系 수습품 중 일부는 초화문 없이 영지문만 간단히 장식하였고, 굽 안쪽에 제작공방을 나타내는 어떠한 문자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경덕

32 林有年, 『安溪縣誌』 土產條·磁器(明·嘉靖) “色白而帶濁 昔時只作粗青碗 近則制花又更清…出崇善 龍興 龍涓三里 皆外縣人氏業作云”

33 『德化縣誌』 卷三 邊域誌 風俗(附)(乾隆12年 修編) “…蜃蛤 魚鹽皆從外邑轉販…百工藝事多藉外人”

34 黃衛文, 『略論德化青花瓷興起與發展的原因』, 『中國古陶瓷研究』13(紫禁城出版社, 2007), p. 269.

35 덕화산 청화백자에 관지로 豐勝, 勝玉, 豐裕, 和美, 合泉, 瑞玉, 山玉, 源利, 振興, 金興, 珍興, 和興, 月記 등 문자를 표현한 것은 복건도자가 상품으로써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 바 있다. 葉文程·林忠干, 『福建陶瓷』(福建人民出版社, 1993), pp. 280-281.



도 11 <백자청화영지문완>, 18세기 후반~19세기, 구경 10.9cm, 저경 5.4cm, 높이 5.0cm, 華安 寶山笠仔山요지 수습, 장주 시박물관(『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華安窯』(福建美術出版社, 2005), p. 124)



도 12 <백자청화영지문완>, 龍井窯 출토(『湖湘陶瓷』1(湖南美術出版社, 2008), p. 284)

진이나 덕화 민요산 보다 더욱 간략하게 제작된 모습을 보인다(도 11). 이 같이 한 가지 문양만 극히 간단하게 장식하는 특징은 湖北省 懷化縣 龍井窯 출토 <백자청화초화문완>(도 12)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³⁶ 외벽 하단에 원권을 두르고 그 위에만 문양을 장식하는 것은 복건, 호북을 포함한 남방일대에서 제작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복건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 중 드물게 기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도광2년(1822)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침몰된 泰興號 출수품이 있다.³⁷ 泰興號 침선에서 영지초화문 접시, 완 등이 여러 점 출토되었는데, 문양 특징을 보았을 때 전형적인 덕화요 생산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해외 수출용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덕화현 내에서도 특히三班鎮 泗濱村에 위치한 梅嶺窯에서 활발히 생산되었다고 전해지며,³⁸ 최근 케냐 쉘라 수증유적에서 덕화산 <백자청화영지초화문완>의 출토가 확인되어 중국 민간에서 일상기명으로 소비된 것 외에 수출용으로도 널리 유통된 사실을 알 수 있다.³⁹

3. 경덕진요와 덕화요 생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조형 차이

중국 민요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를 가장 활발하게 제작했던 경덕진에서는 18세기 중후반경 본격적으로 유행하였고, 복건 덕화일대에서는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경 내·외수용

³⁶ 周世榮, 『湖湘陶瓷』1(湖南美術出版社, 2008), pp. 283-286.

³⁷ 鄭炯鑫, 「從泰興號沉船看清代德化青花瓷器的生產與外銷」, 『德化陶瓷研究論文集』(德化陶瓷研究論文集編委會, 2002), p.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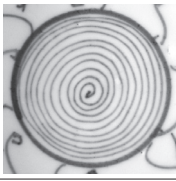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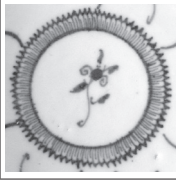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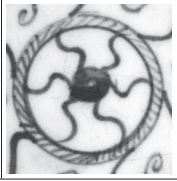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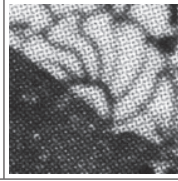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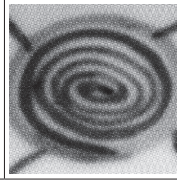
³⁸ 陳建中, 앞의 책(下)(福建美術出版社, 2005), p. 14.

³⁹ 孟原召, 「中肯合作尼亞亞水下考古新收獲」, 『韓·中 水中文化遺產 發掘現況과 保存』(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中國國家博物館, 2013), pp. 16-19.

으로 대량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덕진산과 덕화산 모두 접시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발, 완, 잔이 확인되었다. 생산된 기종은 지역 간에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나, 문양과 관지에서 일부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그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내저중심 문양의 경우 경덕진 민요산은 크게 4종류(나선문, 초화문, 운형문, 화훼문)로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덕화산은 나선문이 장식된 것이 대부분이었다.⁴⁰ 나선문은 두 지역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덕화산의 나선문 지름이 평균적으로 훨씬 좁게 시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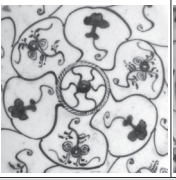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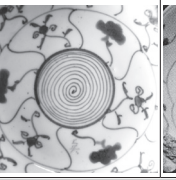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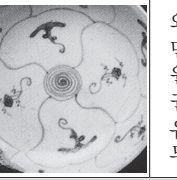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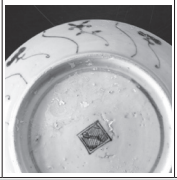

표 4. 경덕진과 덕화 민요 생산품의 내저중심 비교

분류	경덕진산				덕화산
내저중심					

내면에 공간을 구획하는 윤곽선은 경덕진산의 경우 풍성한 화엽형의 윤곽선으로 볼륨감 있게 처리한 것과 간단히 둥글게 처리한 것이 모두 있다. 그러나 덕화산은 대부분 화엽형 윤곽선의 중간부분을 움푹 파이게 하여 공간의 볼륨감이 뚜렷이 느껴지게 구획하였다(표 5).

외벽을 살펴보면 덕화산에만 외벽 하단에 구획선이 둘러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경덕진산은 외벽 하단에 따로 구획선을 두르지 않고 세로 'S'자선으로만 공간을 구획하고 문양을 시문하였다. 그러나 덕화를 비롯한 복건성 일대 민요 생산품의 경우 외벽 하단에 구획선을 두르고 그 위에만 문양장식을 하였다(표 5).

표 5. 경덕진과 덕화 민요 생산품의 내·외면 비교

분류	경덕진산		덕화산	분류	경덕진산	덕화산
내면 구획선				외면 원권 유무		

⁴⁰ 필자가 泉州市博物館과 漳州市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복건성 내 요지 수습 도편을 확인한 결과, 복건 생산품의 내저중심 문양은 대부분 나선문이었다. 그러나 덕화요 생산품 중 원권 내 영지문을 시문한 것, 남정요 생산품 중 원권 내 문자문을 시문한 것이 소수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두 지역 간에 가장 확연한 차이는 초화문에서 보인다. 경덕진 민요산은 일반적으로 중심이 되는 꽃의 양 옆에 한 쌍의 덩굴과 그 위에 한 쌍의 잎을 그려 넣으며, 줄기에도 엇갈리게 한 쌍의 잎을 표현한다. 반면 덕화산은 중심 꽃의 위에 잎 한 쌍, 그리고 줄기에 대칭되게 한 쌍의 잎만 표현하고, 경덕진 민요품과 같이 꽃 옆에 덩굴은 표현하지 않았다(표 6).

굽 안에 시문된 관지 역시 두 지역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경덕진 민요산은 대부분 방형 안에 나선이나 짧은 선들을 가득 채워 제작공방 기호를 나타낸 반면,⁴¹ 덕화산은 ‘승泉’, ‘德源’, ‘火王’, ‘利’ 등 제작공방을 나타내는 명문을 시문하는 차이가 나타났다(표 6).

표 6. 경덕진과 덕화 민요 생산품의 초화문양과 관지 비교

분류	경덕진산	덕화산	분류	경덕진산	덕화산
초화문양			관지		

IV.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조선·일본 전파와 의의

1.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조선과 일본 유입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청대 민간에서 일상기명으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조선과 일본에 실물이 전해지면서 모방 생산 또한 이루어졌다.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를 비롯한 청의 물화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조선과 일본에 각기 다른 경로로 전파되었는데,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던 조선은 육로를 통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며, 해상 밀무역이나 표류 등으로 인한 가능성 또한 거론된 바 있다.⁴²

여러 경로 가운데 육로를 이용한 사행여정 중 민간에서 중국산 기명을 실견하였거나 구입

⁴¹ 한국, 일본 소비유적 출토 경덕진산 가운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원이나 직선을 그려 제작공방을 나타낸 것과 ‘宣德年制’, ‘成化年制’를 관지로 시문한 것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그럼에도 경덕진 민요산의 경우 굽 안에 방형의 제작공방 기호를 표현한 것이 우세하다.

⁴² 구혜인, 「朝鮮後期陽刻白磁研究」, 『美術史學研究』 263(韓國美術史學會, 2009), pp. 104-105; 김미경, 「19세기 조선 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講座美術史』(韓國美術史學研究所, 2009), p. 298.

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는데, 북경에는 조선 사신단과 고정적으로 거래하던 상인집단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 특히 주목된다.⁴³ 그들은 조선의 기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 이에 맞춰 크고 작은 각종 물화들을 준비하였으며, 그들과의 거래는 사행 일정을 변경할 정도로 매우 중요했다.⁴⁴ 소주의 비단이 주요 거래 물품 중 하나였는데, 각종 물화가 교역되던 상황에서 중국 남방의 대표 물산이라 할 수 있는 경덕진 자기 또한 거래되지 않았을까 싶다.

또 한 예로 李岬이 『燕行記事』에 柵欄으로부터 구매한 물목을 기록한 것 중 “各種磁器”⁴⁵가 포함되어 있어, 민간에서 통용되었던 다양한 청대자기를 구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사신단이 청상과 거래한 물품 중 당시 민간에서 일상기명으로 유행하였던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출토된 청대자기 중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발견이 빈번한 편이며, 현재까지 조사로 서울 10곳, 경기도 2곳, 강원도 1곳에서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발견되었다(표 7). 서울 내 중요유적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발굴보고를 토대로 보면 가장 고급의 소비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서울에서의 출토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사대문 내 지역이나 왕실내지 관청과 연관되는 장소에서 발견되는 점도 주목을 끈다. 특히 훈국궁영직소지,⁴⁶ 종묘유적,⁴⁷ 그리고 지방의 경우 남한행궁지,⁴⁸ 강원감영⁴⁹에서 확인되는 것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지역 유적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좀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이국 문물의 소비 실체가 분명해질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대부분(표 7)에서 정리하였듯이 경덕진 민요산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기도 포천 출

43 李宜懸, 『庚子燕行雜識』(下) “鄭世泰即北京大賈也 其富罕儼 我國所買錦段 皆出其家 至於世所稱難得之貨 求之此家 無不得者 下至花果竹石名香寶器 亦皆種種具備 家在玉河橋大路之南 制作甚宏傑 擬於宮闕 爲我國買賣之主 故譯輩凡有大小買賣 奔走其家 晝夜如市 此人通南貨 而今番貨到稍遲 譯輩以此故延行期 使行淹速”

44 洪大容, 『湛軒書』外集 卷7 「燕記·鋪商」 “每我國有事 多籍其力 稼齋錄中鄭世泰是也 世泰既死 子孫世主之 蓋緞貨皆出南方 又我國所需 皆取價賤 好尚與中國異 鄭家習知之 先期買取于南市 容入七八萬兩銀 每年爲常 織匠亦知我國好尚 緞品漸變 與中國所尚不同 及我國禁紋緞 鄭家所先買者既不見售 又中國所不用 因此而大窘 漸以消敗 則他商日進 今爲五十餘人 然宮中例質及別付 猶主鄭家 以色品之猶佳也”

45 李岬, 『燕行記事』 「聞見雜記」(下) “及其回還 使行出柵 仍令互市于柵外…買取于柵商者 棉花 鉛錫 蘇木 胡椒 龍顏 荔枝 閩薑 橋餅 各種磁器之屬”

46 國立中央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 特別調查報告 第四冊-景福宮 訓局軍營直所址』(1996).

47 서울역사박물관, 『종묘광장 발굴조사보고서』(2012).

4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시, 『南漢行宮址第2次發掘調査報告書』(2000); 同著, 『南漢行宮址第4·5次發掘調査報告書』(200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경기문화재단, 『南漢行宮址第6次發掘調査報告書』(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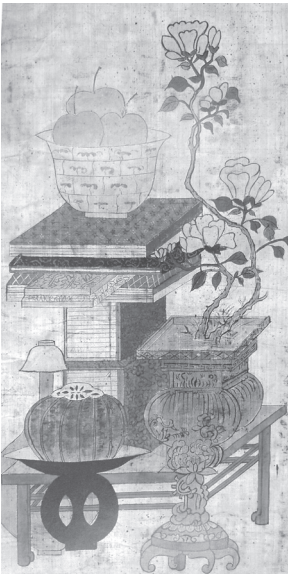
49 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市, 『江原監營·靑雲堂址周邊發掘調査報告書』(2006).

표 7. 한국 소비유적 출토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 현황

지역	유적명	출토품	추정 생산지	출 처	조사 기관	발행 년도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부지	접시	경덕진 민요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부지 내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지원 위원회 자료집』	한강문화재 연구원	2008
	도림동 유적	발	경덕진 민요	『서울 도림동 유적』	한강문화재 연구원	2013
	동대문운동장 유적	접시, 발	경덕진 민요, 남방민요	『동대문 운동장 유적: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부지 발굴조사』	증원문화재 연구원	2011
	서린동 유적	저부편	경덕진 민요	『서울 서린동 유적』	한강문화재 연구원 외	2012
	육조거리 유적	접시	경덕진 민요	『서울 육조거리 유적』	한강문화재 연구원 외	2011
	종로구 사간동 한국불교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신축공사 부지	접시	경덕진 민요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신축공사 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상명대학교 박물관	2007
	종로 청진1지구	접시	경덕진 민요	『종로청진1지구 유적』	한울문화재 연구원	2011
	종로 청진2~3지구	접시	경덕진 민요	『종로 청진2~3지구 유적』Ⅱ	한울문화재 연구원	2013
	종묘유적	완, 접시	경덕진 민요	『종묘광장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역사 박물관	2012
	훈국군영직소지	접시	경덕진 민요	『國立中央博物館 特別調查報告 第四冊-景福宮 訓局軍營直所址』	국립중앙 박물관	1996
경기도	남한행궁지	저부편	경덕진 민요	『南漢行宮第2次發掘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토지 박물관 외	2000
	포천 민요	접시	경덕진 민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도자』	-	2007
강원도	강원감영	저부편	경덕진 민요	『江原監營靑雲堂址周邊發掘調査報告書』	강원문화재 연구소 외	2006



도 13 <백자청화영지초화문접시>, 18세기 후반~19세기, 구경 18.5cm, 저경 11.5cm, 높이 3.5cm, 경기도 포천 출토,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國陶磁』(예경, 2008), 도207)



도 14 <기명도>, 조선, 견본채색, 34.0×88.0cm, 계명대학교 박물관(『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민화』(예경, 2004), 도348)



도 15 <기명도>, 조선, 지본채색, 39.5×108.0cm, 인천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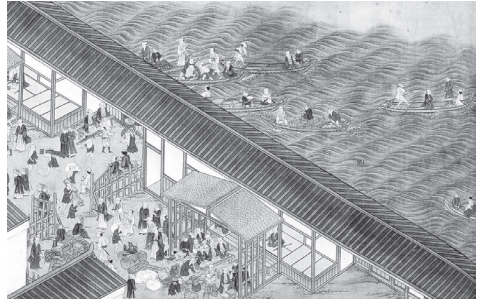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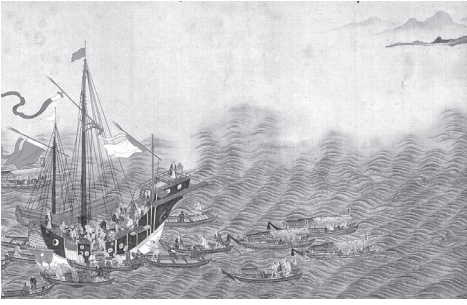
토 <백자청화영지초화문접시>(도 13)⁵⁰와 曹建文 소장 曾氏(1810~1857)墓 출토품(도 9)을 비교할 수 있는데, 크기 및 문양 특징을 보아 19세기 전후에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 소비유적 출토품⁵¹ 역시 대부분 18세기 중후반 이후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기종별로 보았을 때 중국 민요에서 접시가 가장 많이 제작된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접시의 출토가 두드러졌다. 이같이 한국에 경덕진 민요산이 현저히 발견되는 까닭은 명청시기 중국 각지에 경덕진산 도자가 민수용으로 대량 유통되던 상황에서 청과 주로 육로로 왕래하였던 조선인이 중국 여러 도시를

거치는 동안 경덕진 자기를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조선에서의 영지초화문 청화백자 유입과 수요 확산을 보여주는 회화자료도 있어 주목된다. 19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명도>(도 14, 15)들에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등장한다. 당시 민화에 서적 및 각종 寶器들과 함께 중국자기가 빈번히 출현하여 이 <기명도>에 출현하는 발이 중국 민요산일 가능성이 있으나, 조선산 역시 당시

⁵⁰ 國立中央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國陶磁』(예경, 2008), p. 321.

⁵¹ 한국 소비유적 출토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효진, 앞의 논문(2011), pp. 50~55 참조.



도 16 〈長崎唐館交易図巻〉 세부,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건본채색, 36.4×776.9cm, 神戸市立博物館
 (『長崎唐館図集成5:近世日中交渉史料集6』(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2003), 도22)

한양에서 적지 않게 소비되어 그 생산지를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민화에서 도상을 복제하면서 소비하고 있었던 점은 당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공예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중국에서 명대 만기 이후 淸供圖류 회화작품의 주요항목에 영지가 포함되는데, 〈기명도〉에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를 그려 넣게 된 것은 淸供圖 등에서 길상적인 의미로 출현하는 영지의 대체 효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일본은 지리적 여건상 해상로를 통해 중국 물화가 유입되었다. 德川幕府의 쇄국정책에 따라 1616년 이후 長崎와 平戸 두 항구만 외래선박에게 개방하였고, 간에이12년(1635) 이후부터는 나가사키에만 중국상선이 정박할 수 있었다.⁵² 당시 나가사키의 중국상인의 모습을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작품으로 전해지는 〈長崎唐館交易圖巻〉(도 16)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중국상선이 입항하는 모습부터 중국인 거류지에 무역품을 하역하고 창고에 넣는 모습, 중국인 거주 건물, 사당, 풍속 등이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게 한다.

일본에 무역하기 위한 중국 각지 물화들은 중국 동남해안의 해상교통이 발달된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자세한 내용을 『長崎實錄大成』 卷10 「海路更數並古今唐國渡湊之說」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절강, 복건, 광둥 등지의 직물, 약제, 기물이 上海와 절강의 乍浦 두 항구에 집합해 나가사키로 향했다고 한다.⁵³ 따라서 상해항과 사포항에서 출항하는 대일 무역선에 복건을 비롯한 남방 지역 도자기가 적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추정하건대 경덕진이 위치한 강서성이 절강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수용 경덕진까지 또한 사포나 인근 상해항에 어렵지 않게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⁵² 華立, 「從長崎貿易看江戶時代淸日兩國의經濟·文化交流」, 『日本學報』2(경상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1995), pp. 31-34.

⁵³ 田辺茂啓·小原克紹, 『長崎實錄大成』(長崎文獻社, 1973), p. 241; 松浦章, 『江戶時代唐船による日中文化交流』(思文閣出版, 2007), p. 12.

중국산 도자기가 일본에 유통된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는 『長崎奇聞』이다.⁵⁴ 내용 중에 소주에 파견된 관료 童華가 각 지역 상인과 접촉하여 나가사키 풍토에 대해 기록한 것에 청은 자기류를 비롯한 生絲, 양탄자 등을, 일본은 銅, 전복 등 해산물 등을 무역하였다고 한다. 당시 청이 일본에서 은과 동을 대량 유입한 것은 시장경제 발달로 은폐 주조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은과 동 유출로 일본은 끊임없이 중국 무역선을 견제하였지만,⁵⁵ 중국은 일본이 필요로 했던 생사, 주단, 약제, 도자기, 양탄자 등 물자를 공급하며 무역을 이어나갔다.

일본에서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에도유적, 나가사키유적, 교토유적, 오사카유적 등지에서 소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에도유적과 나가사키유적의 출토상황과 일부 전세품을 살펴보겠다.⁵⁶

에도유적의 경우 다이묘 및 하타모토 저택 등 고위층의 생활공간을 비롯한 하급무사의 주거지에서도 경덕진 민요산 완과 잔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는 다도문화가 유행하며 상급관리 뿐 아니라 하급무사까지 이국의 다구를 소비한 현상으로 여겨지며, 청말민초 남방민요에서 유행하였던 남은 찌꺼기 태토를 활용해 제작한 渣胎碗이 다량 출토되는 것도 다양한 계층에게 향유된 다도의 유행 때문이었다.



도17 〈唐人卓子圖〉, 長崎版畫(扇浦正義, 『長崎出土の清朝陶磁』, 『貿易陶磁研究』19(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9), 도8)

청대자기가 출토된 일본 지역 중 나가사키는 국제무역항으로 개방된 특수한 도시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지마의 네덜란드 商館유적과 중국무역의 거점인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경덕진 및 복건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를 비롯한 다량의 청대자기가 발견되었고, 당시 나가사키에 거주하던 외국인에 의해 소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복건, 광둥 일대 남방 출신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다고 전

⁵⁴ 옹정제가 강남의 재정상태 및 납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童華를 소주에 파견하였는데, 그가 소주에서 각 지역 상인을 만나 나가사키의 위치, 방비시설, 물가, 사찰 및 사당, 교통수단, 네덜란드 무역의 현황, 동남아시아 각 국과의 교역관계, 正徳新例 信牌의 배포 및 동 입수의 현황, 상선무역의 현황, 銅 무역 등을 조사해 기록한 것이 『長崎奇聞』이다. 松浦章, 앞의 책(思文閣出版, 2007), pp. 122-136.

⁵⁵ 湛貴成, 「閉關鎖國時期日本對清商的政策」, 『鄭州大學學報』2008-2, (鄭州大學, 2008), pp. 139-141.

⁵⁶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를 비롯한 청대자기의 일본 내 소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장효진, 앞의 논문(2011), pp. 86-99; 日本貿易陶磁研究會, 『貿易陶磁研究』19(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9); 京都國立博物館, 앞의 책(読売新聞社, 2013), pp. 37-42.

해져,⁵⁷ 이들이 자국의 일상용기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華商을 중심으로 유행한 중국풍 일본요리인 싯포쿠요리(卓袱料理)⁵⁸가 확산되며 이에 걸맞은 중국 식기 또한 유입된 것을 당시 관화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도 17).⁵⁹

일본 민간에서는 가문 대대로 적지 않은 청대자기가 전세되곤 하는데, 한 예로 에도시대 豪商 가문으로 명성을 떨친 田中本家 전세품 가운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확인되었다.⁶⁰ 19세기 경덕진 민요 생산품으로 판단되며, 일본 민간에서 널리 유행한 경덕진 민요자기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2. 조선과 일본의 영지초화문 청화백자 모방 생산

중국 민요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상술한 경로로 조선과 일본에 유입된 동시에, 각국에서 모방 생산을 촉발하였다. 그러나 문양양식, 제작주체, 소비계층이 달라지면서 지역별로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



도 18 <백자청화영지초화문‘毓’명접시>, 19세기, 구경 21.0cm, 저경 12.4cm, 높이 5.4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朝鮮時代 마지막 官窯 廣州 分院里窯 靑畫白磁』, (1994), 도71)

조선에서는 19세기 이후 관요인 분원리요를 중심으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생산되었다.⁶¹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편년을 가지는 분원리요 최상위층에서 영지초화문 발, 대접, 접시, 잔 등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접시의 비중이 높다. 분원리 외에는 양구 방산 칠전리요 일대에서도 생산이 확인되었다.⁶²

57 廖赤陽, 「華商의 네트워크와 長崎陶磁貿易」, 『貿易陶磁研究』 19(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9), pp. 85-96.

58 싯포쿠요리란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발달한 중국풍 일본요리다. 華商을 중심으로 싯포쿠요리가 생기자 4개의 긴 다리가 있는 중국식 식탁에서 음식을 작은 접시에 각자 덜어먹는 중국식 식사예절이 내·외국인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59 扇浦正義, 「長崎出土の清朝陶磁」, 『貿易陶磁研究』 19(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9), pp. 34-36.

60 京都國立博物館, 앞의 책(讀売新聞社, 2013), p. 83.

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백자요지』(1986);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窯址地表面調査報告書 圖版篇』(1998); 同著, 『京畿道廣州中央官窯·窯址地表面調査報告書 解説篇』(2000); 기전문화재단연구원·광주군,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조선관요박물관·경기도 광주시, 『廣州의 朝鮮陶磁窯址 - 廣州市內 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 -』(2004);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경기도 광주시, 『조선시대 마지막 官窯 - 廣州 分院里 白磁窯址』(2006).

6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양구군, 『楊口 方山の 陶窯址: 地表面調査報告書』(2001).

조선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당시 국내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는데, 毓祥宮에서 소비된 것으로 밝혀진 <백자청화영지초화문‘毓’명접시>⁶³(도 18) 및 <백자청화영지초화문‘雲峴’명접시>를 비롯한 일부 궁궐유적 출토품의 경우 비교적 양질로 중앙 관련 계층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유적 및 소비유적에서 출토되는 일부 조질자기는 분원의 민영화에 따라 왕실은 물론 민간에서도 여러 계층에 의해 소비되었다. 현재까지의 발굴조사를 토대로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에서의 출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⁶⁴ 조선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분원산 청화백자들이 그러했듯이 한양에서 널리 소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산 역시 중국 민요산과 마찬가지로 접시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지만, 세부문양에서 독자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내저중심에 ‘壽’ 혹은 ‘福’자를 시문하는 것으로, <백자청화영지초화문‘毓’명접시>(도 18)를 예로 들 수 있다. 수복자문은 조선 왕실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선호했던 문양으로 특히 19~20세기에 유행하였는데, 경덕진 민요산과 달리 조선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에는 내저중심에 수복자문이 장식되어 길상적인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8세기 중반 이후 肥前과 瀬戸·美濃 일대 요장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생산되었다(표 8). 현재까지는 히젠 樋口 3호요 IV-2기층(1750~1790) 출토품에 근거하여 일본에서는 1750년대 이후부터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⁶⁵ 전체적인 구도는 중국 민요산을 따르지만, 내면을 10개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이나 영지문양 등 세부문양 양식에서 또 다른 특징을

표 8. 히젠, 세토 요장 생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

		
<p>肥前 樋口 3호요 출토품</p>	<p>永尾本等窯 출토품</p>	<p>瀬戸 經塚山窯 출토품</p>

⁶³ 최경화, 「19세기 청화백자의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 5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朝鮮時代 마지막 官窯 廣州 分院里窯 靑畫白磁』(1994), p. 113.

⁶⁴ 조선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한국 내 소비현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장효진, 앞의 논문(2011), pp. 60-73 참조.

⁶⁵ 大橋康二, 『考古学ライブラリー・肥前陶磁』(ニコー・サイエンス社, 1993), pp. 66-68, 116.



도 19 <京都 시내 유적 출토 청대자기>, 19세기 중반, 京都市考古資料館(京都國立博物館, 『魅惑の清朝陶磁』(読売新聞社, 2013), p. 41)

모방 제작하였는데, 세토 經塚山窯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출토된 예가 있다.⁶⁸ 19세기 초 세토·미노 요장에서 유행하였던 형태의 완으로, 내저에 작은 원을 중심으로 매우 간략하고 빠르게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짐작된다. 문양시문에 있어 히젠산 보다 훨씬 간략화된 양상을 나타낸다.



도 20 <백자청화영지초화문접시>, 20세기, 구경 11.2cm, 직경 6.8cm, 높이 1.7cm, 서울 송현동 유적 출토(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송현동 유적』(2012), 원색 사진)

⁶⁶ 波佐見町教育委員会, 『波佐見町内古窯跡群調査報告書』(1993).

⁶⁷ 堀内秀樹, 『江戸遺跡出土の清朝陶磁』, 『貿易陶磁研究』19(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9), p. 19.

⁶⁸ 愛知縣瀬戸市教育委員會·瀬戸市埋藏文化財センター, 『經塚山西窯跡』(1993).

⁶⁹ 일본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일본 내 소비현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장효진, 앞의 논문(2011), pp. 104-109 참조.

보인다. 역시 히젠지역에서 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永尾本等窯 생산품을 살펴보면,⁶⁶ 18세기 후반 이후 새롭게 출현하는 굵이 높고 기벽이 사선으로 벌어지는 기형에 영지초화문이 장식되었으며,⁶⁷ 영지와 초화문양이 樋口 3호요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생산연대는 1820~1860년대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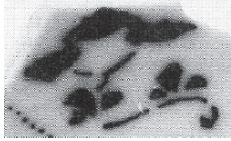

세토·미노 일대에서도 청대자기를

일본에서 생산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전국의 주거지, 사지, 관아지 등에서 출토되었고,⁶⁹ 주로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퇴적에서 히젠 및 세토·미노계 자기와 동반출토 되었다. 히젠산과 경덕진산이 동시에 소비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는데, 京都 시내 유적에서 19세기 초중반 생산품으로 추정되는 히젠산 채색자기(도 19의 우측 하단)와 경덕진산(도 19의 좌측 중간)이 모두 출토되어 일본산과 중국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동시에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19).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 내에서 생산되었으며, 대중적인 성격

표 9. 한국 소비유적 출토 일본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 현황

지역	유적명	출토품	출 처	조사기관	발행 년도
서울	경복궁 침전지역	접시	『景福宮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	문화재 관리국 외	1995
	근기시터 유적	저부편	『서울 근기시터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외	2011
	덕수궁 함녕전북행각지	접시	『德壽宮 威寧殿 北行閣址· 萬喜堂址發掘調査報告書』	고려문화재연구원 외	2009
	동대문운동장	접시,발	『동대문 운동장 유적: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부지 발굴조사』	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송현동	접시	『서울 송현동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외	2012
	송례문	잔	『崇禮門:송례문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종묘유적	접시	『종묘광장 발굴조사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2012
	중학동	완	『서울 중학동 유적: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신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고려문화재연구원 외	2009
	PAGODA 타워 종로 유적	접시	『PAGODA타워 종로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경기 도	남한 행궁지	잔	『南漢行宮址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한국토지 공사토지 박물관 외	2000
	양주관아지	완	『楊州官衙址1次發掘 및 試掘調査報告書』	경기문화재단 외	2000

표 10. 경덕진, 복건, 일본, 조선산의 영지문양

			
江西省萬安水庫 건륭60년(1795)묘 출토 〈백자청화영지 초화문접시〉 세부	복건 안계요 수습 〈백자청화영지 초화문접시〉 세부	경복궁 침전지역 출토 〈백자청화영지 초화문편〉 세부	종묘광장 전교 출토 〈백자청화영지초화문 발편〉 세부

을 띠면서 널리 소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에서도 일본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출토된 사례가 있는데(표 9, 도 20), 궁궐 유적 등이 중심이며 서울에서 빈번하다. 근대기 큐슈일대 요장에서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며, 기

계식 굽 깎음과 型紙摺繪⁷⁰ 기법을 사용한 근대식 자기이다. 또 기벽이 아주 얇아 당시 일본이 조선 수출용으로 제작한 운두가 깊고 기벽이 두꺼운 자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개항 이후 조선에 일본상인 뿐 아니라 조선상인에 의해서도 일본자기가 활발히 유통되었다고 전해지는데,⁷¹ 이 계통은 그들이 유통시킨 일본 일상기명일 가능성이 있으며, 20세기 초반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주요 소비계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조선에 유입된 근대기 일본산과 일부 분원산의 영지문양이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특히 주목된다. <표 10>을 살펴보면 중국산의 경우 영지가 사실적으로 갖, 고리, 자루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본산과 일부 분원산의 경우 영지문에도 초화문에 표현된 것과 같이 화려한 잎을 장식하였다. 이와같이 문양의 사실성 보다 장식성이 강화되며 점차 추상화 되는 점이 일치함에 따라, 분원과 근대기 큐슈일대 요장의 영향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문헌기록, 발굴성과 및 전세품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연원과 제작배경, 지역별 양식적 특징 및 성격을 살펴보았다.

기존에는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연원과 관련해 어기창유적 명대 선덕 층위 출토품만 간단히 언급되었으나, 청 황실이 소장한 역대 골동 목록에서도 기원으로 추정되는 기물이 확인되어, 청 황실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연원이라고 볼 수 있는 명대 관요품을 지속적으로 소장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명대 관요양식이 반영된 청대 관요품도 확인되어, 청대에 명대 관요양식이 재현된 사실을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경덕진 민간에서 대유행에 이르게 된 것은 관요 낙선품 처리방법의 변화와 관탐민소의 실행으로 관요의 폐쇄적인 성격이 전환되어 민간에 관요양식이 유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본 논문에서 경덕진과 복건 민요산의 양식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은, 여러 소비유적 출토품의 계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경덕진과 복건 민요산 모두 접시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나, 세부문양 양식 및 관지의 특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⁷⁰ 바탕지에 문양을 오려내고 그 구멍에 안료를 넣어 문양을 찍어내는 기법으로, 이마리, 세토·미노 등 요업이 번성한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윤소라,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한국 출토 일본도자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 108.

⁷¹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美術史論壇』29(한국미술연구소, 2009), pp. 14-17.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건을 비롯한 남방일대 요장에 경덕진 양식이 전파된 것은 각 지방 상인들에 의해 경덕진 자기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과 경덕진 도공의 이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확인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모방 생산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제작주체 및 소비계층이 달라지면서 중국에서와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조선의 경우 왕실을 비롯한 중앙 관련 계층이 사용한 고급기명의 성격을 지녔던 동시에 한양에서 여러 계층에 의해 폭넓게 소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히젠 및 세토, 미노계 요장에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생산되었고 일본 각 지역에서 민간용 일상기명으로 널리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근대기 일본산의 출토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는데, 일본의 대조선 수출용 자기와 양상이 달라 20세기 초반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에 의해 소비되었을 가능성 또한 엿보여,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다양한 계층에게 각기 다른 성격으로 소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민간에서 손쉽게 제작되며 보편적인 성격으로 널리 유통되어, 소장가들 사이에서 수집과 감상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민간용 백자라는 성격 때문에 연구 주제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명대 선덕 관요양식에서 출발해 일본에서 근대 식기법으로 제작되기까지 500여 년간 지속되며 각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으로 생산, 소비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덕진 및 복건, 광둥지역의 현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시도하였으며, 단순하게 조형비교 중심의 도자 교류사 연구에서 더 나아가 계통의 연원과 흐름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한다.

*주제어(Key Words) 靑畫白磁(White porcelain pain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靈芝草花文(lingzhi and floral motif), 唐英(Tangying), 景德鎮(Jingdezhen), 德化(Dehua), 分院(Bunwon), 肥前(Hizen), 外銷瓷(Export porcelain)

■ 투고일 2013년 11월 19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2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월 27일 ■

참고문헌

1. 사료

- 『江西大志』
『景德鎮圖錄』
『庚子燕行雜識』
『湛軒書』
『德化縣誌』
『明英宗睿皇帝實錄』
『浮梁縣誌』
『安溪縣誌』
『燕行記事』
『清宮內務府造辦處檔案總匯』
『皇明經世文編』

2. 단행본

- 藍浦 원저·林相烈 역주, 『(譯註)景德鎮陶錄』, 일지사, 2004.
唐英, 『唐英全集』4, 學苑出版社, 2008.
大橋康二, 『考古学ライブラリー55·肥前陶磁』, ニコー・サイエンス社, 1993.
松浦章, 『江戸時代唐船による日中文化交流』, 思文閣出版, 2007.
葉文程·林忠干, 『福建陶瓷』, 福建人民出版社, 1993.
吳其生, 『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南靖窯』, 福建美術出版社, 2005.
吳其生·李知安, 『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華安窯』, 福建美術出版社, 2005.
劉朝暉, 『明清以來景德鎮瓷業與社會』, 上海世紀出版集團, 2010.
周世榮, 『湖湘陶瓷』1, 湖南美術出版社, 2008.
曾凡, 『福建陶瓷考古概論』, 福建省地圖出版社, 2001.
陳建中, 『德化民窯青花』, 文物出版社, 1999.
_____, 『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德化窯(上)』, 福建美術出版社, 2005.
_____, 『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德化窯(下)』, 福建美術出版社, 2005.
王光堯, 『明代宮廷陶瓷史』, 紫禁城出版社, 2010.
黃福蓮, 『中國福建古陶瓷標本大系·光澤窯』, 福建美術出版社, 2005.

3. 도록

- 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徐氏藝術館, 『成窯遺珍:景德鎮珠山出土成化官窯瓷器』, 徐氏藝術館, 1993
- 京都國立博物館, 『魅惑の清朝陶磁』, 読売新聞社, 2013.
- 계명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민화』, 예경, 2004.
- 故宮博物院,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全集:玉器(中)』, 商務印書館;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6.
- 古董拍賣年鑑編委會, 『2004古董拍賣年鑑·瓷器』, 湖南美術出版社, 2004.
- 國立中央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國陶磁』, 예경, 2008.
- 大庭脩, 『長崎唐館図集成5:近世日中交渉史料集6』,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2003
- 北京匡時國際拍賣有限公司·北京中漢拍賣有限公司, 『中國古代瓷玉工藝品傳場』, 2006.
- 首都博物館, 『景德鎮珠山出土永樂官窯瓷器』, 文物出版社, 2007.
- 炎黃藝術館, 『景德鎮出土元明官窯瓷器』, 文物出版社, 1999.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朝鮮時代 마지막 官窯 廣州 分院里窯 靑畫白磁』, 1994.
- 神戸市立博物館, 『日本絵画のひみつ: 開館30年プレ企画特別展』, 2011.
- 中國陶瓷全集編集委員會, 『中國陶瓷全集:明』,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 中國出土瓷器全集編委會, 『中國出土瓷器全集』14, 科學出版社, 2008.
- 香港藝術館, 『景德鎮珠山出土永樂宣德官窯瓷器展覽』, 香港市政局, 1989.
- 鴻禧美術館, 『景德鎮出土陶磁明初官窯磁器』, 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6.
- _____, 『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瓷器』, 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8.

4. 보고서

- 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市, 『江原監營:靑雲堂址周邊發掘調查報告書』, 2006.
- 京畿文化財團·畿甸文化財研究院·楊州郡, 『楊州官衙址 1次 發掘 및 試掘調查報告書』, 2000.
- 高麗文化財研究院·문화재청, 『德壽宮咸寧殿北行閣址·萬喜堂址發掘調查報告書』, 2009.
- 高麗文化財研究院·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서울 중학동 유적-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신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2009.
- 국립문화재연구소, 『崇禮門:승례문 발굴조사 보고서』, 2011.
- 國立中央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 特別調查報告 第四冊-景福宮 訓局軍營直所址』, 1996.
- 文化財管理局·國立文化財研究所, 『景福宮寢殿地域發掘調查報告書』, 1995.
-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 『江西景德鎮明清御窯 遺址發掘簡報』, 『文物』2007-5, 文物出版社, 2007.
- _____, 『江西景德鎮觀音閣明代窯址發掘簡報』, 『文物』2009-12, 文物出版社, 2009.
- 상명대학교박물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 조사』, 2007.
- 서울역사박물관, 『중요광장 발굴조사보고서』, 2012.

- 愛知縣瀬戸市教育委員會·瀬戸市埋藏文化財センター, 『經塚山西窯跡』, 1993.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양구군, 『楊口 方山の陶窯址:地表調査報告書』, 2001.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경기도 광주시, 『조선시대 마지막 官窯-廣州 分院里 白磁窯址』, 2006.
- 中原文化財研究院, 『동대문 운동장 유적: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부지 발굴조사1-3』, 2011.
- 波佐見町教育委員會, 『波佐見町内古窯跡群調査報告書』, 1993.
-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부지 내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2008.
- _____, 『서울 도림동 유적』, 2013.
- _____, 『서울 송현동 유적』, 2012.
- 한강문화재연구원·서울특별시, 『서울 근기시터 유적』, 2011.
- 한강문화재연구원·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 서린동 유적』, 2012.
- _____, 『서울 육조거리 유적』, 2011.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시, 『南漢行宮址第2次發掘調査報告書』, 2000.
- _____, 『南漢行宮址第4·5次發掘調査報告書』, 2003.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경기문화재단, 『南漢行宮址第6次發掘調査報告書』, 2003.
-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청진1 지구유적II』, 2011.
- _____, 『종로청진2~3 지구유적II』, 2013.
- _____, 『PAGODA타워종로유적』, 2012.

5. 논문

- 江建新, 「景德鎮窯業遺存的考察與研究」, 『陳昌蔚紀念論文集』3, 陳昌蔚文教基金會, 2006.
- _____, 「景德鎮宋元時期瓷器外銷與新安沉船中的瓷器—兼論高麗青瓷和朝鮮白瓷青花與景德鎮窯之關係」, 『中國古陶瓷研究』14, 紫禁城出版社, 2008.
- 구혜인, 「朝鮮後期陽刻白磁研究」, 『美術史學研究』263, 韓國美術史學會, 2009.
- 權奎山, 「江西景德鎮明清御器(窯)廠落選品處理的考察」, 『文物』2005-5, 文物出版社, 2005.
- 堀内秀樹, 「江戸遺跡出土の清朝陶瓷」, 『貿易陶瓷研究』19, 日本貿易陶瓷研究會, 1999.
- 金美景,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清代 磁器의 影響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_____,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講座美術史』, 韓國美術史學研究所, 2009.
- 廖赤陽, 「華商의 네트워크와 長崎陶磁貿易」, 『貿易陶瓷研究』19, 日本貿易陶瓷研究會, 1999.
- 湛貴成, 「閉關鎖國時期日本對清商的政策」, 『鄭州大學學報』2008-2, 鄭州大學, 2008.
- 孟原召, 「中肯合作尼亞水下考古新收獲」, 『韓·中 水中文化遺產 發掘現況과 保存』,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中國國家博物館, 2013.
- 扇浦正義, 「長崎出土の清朝陶磁」, 『貿易陶瓷研究』19, 日本貿易陶瓷研究會, 1999.
- 劉新園, 「景德鎮明御廠故址出土永樂, 宣德官窯瓷器之研究」, 『景德鎮珠山出土永樂宣德官窯瓷器展覽』, 香

- 港市政局, 1989.
- 吳藝娟, 「安溪窯與海上絲綢之路古陶瓷初探」, 『中國古陶瓷研究』14, 紫禁城出版社, 2008.
- 劉新園, 「明宣宗與宣德官窯」, 『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瓷器』, 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8.
- 劉毅, 「論“官搭民燒”與明嘉靖民窯青花發展及藝術新風」, 『中國陶瓷』47, 中國輕工業陶瓷研究所, 2011.
- 劉朝暉, 「明清以來景德鎮的瓷業與社會控制」, 復旦大學 歷史學系 박사학위 논문, 2005.
- 윤소라,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한국 출토 일본도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장효진,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流行과 傳播: 18-20世紀初 朝鮮과 日本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鄭炯鑫, 「從泰興號沉船看清代德化青花瓷器的生產與外銷」, 『德化陶瓷研究論文集』, 德化陶瓷研究論文集編委會, 2002.
- 趙宏, 「“官搭民燒”考」, 『故宮博物院院刊』1, 紫禁城出版社, 1996.
- 曹國慶, 「明清時期景德鎮的徽州瓷商」, 『江淮論壇』2, 安徽省社會科學院, 1987.
- 鐵源, 「陶瓷的故鄉江西」, 『江西藏瓷全集·清代(上)』, 朝華出版社, 2005.
- 최경화, 「19세기 청화백자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 「18, 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美術史論壇』29, 한국미술연구소, 2009.
- 華立, 「從長崎貿易看江戶時代清日兩國的經濟·文化交流」, 『日本學報』2, 경상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1995.
- 黃衛文, 「略論德化青花瓷興起與發展的原因」, 『中國古陶瓷研究』13, 紫禁城出版社, 2007.

국문초록

靈芝草花文 靑畫白磁는 기면에 청화안료로 공간을 일정하게 구획하고, 그 안에 도안화된 영지와 초화문양을 번갈아 장식한 것이다. 명대 선덕연간 관요양식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청대 이후 景德鎮 민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근대기까지 福建, 湖北 일대 등 남방민요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전개되었다. 따라서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관요와 민요, 경덕진과 기타 지방 민요와의 관계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용 도자라는 특성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써 주목받지 못하였다. 또 한국과 일본의 소비유적에서 빈번히 출토가 보고되나 정확한 계통과 전파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전세품을 비롯해 새롭게 확인된 기록과 발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연원과 제작배경을 비롯해 지역별 조형 특징 및 지역 간에 각기 다르게 전개되는 양상과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의 연원은 경덕진 어기창유적 선덕연간 층위 출토품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청궁이 소장한 골동 목록에서도 이와 동일한 계통의 기물이 확인되어, 청 황실이 명대 관요품을 지속적으로 소장하면서, 모방품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관요양식에 기원을 두는 영지초화문 청화백자가 민간에서 대유행에 이르게 된 것은 관탐민소와 관요 낙선품을 민간에 판매 처리하는 방식이 실행되며 가능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대 중기에 이르면 경덕진 민요 뿐 아니라 복건 일대 민요에서도 활발히 생산되었는데, 경덕진 자기가 전국으로 유통된 동시에 장인들이 남방으로 이주하여 남방 일대 민요에서도 경덕진양식의 도자기가 생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되는 중국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대부분 18세기 중반 이후 제작된 경덕진 민요산이 두드러졌으며, 각 지역에서 모방 생산이 이루어졌으나 제작주체 및 소비계층이 달라지면서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조선의 경우 왕실내지 관청과 연관되는 장소에서 중국산의 소비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관요인 분원리요를 중심으로 생산되며 가장 고급의 소비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한양에서 폭넓게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18세기 중후반 이래 肥前 일대 요장을 시작으로 瀬戸, 美濃 요장에서 민간용 일상기명으로 생산되었으며, 한국 소비유적에서도 근대식 기법으로 제작된 일본산이 발견되었다.

영지초화문 청화백자는 명대 선덕 관요양식에서부터 일본에서 근대식기법으로 제작되기까지 500여 년간 지속되며 각 지역에서 각기 다른 성격으로 생산, 소비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Abstract

The Popularity and Transmission of Chinese Blue-and-White Porcelains with Lingzhi-Floral Design during 18th to early 20th Century

Jang Hyo-jin *

Blue-and-white porcelain ware with the *lingzhi* and floral motif is characterized by decoration of the surface with a succession of stylized *lingzhi* and floral motifs painted in cobalt blue. The origin of ceramic works of this type dates back to the early 15th century, when such works were produced in the kilns operated by the imperial court of the Ming Dynasty, although they poured into the markets of Jingdezhen in Jiangxi Province, China during the Qing Dynasty and continued to be produced in the kilns of Fujian and Hubei provinces across South China until the modern period. Blue-and-white porcelain with the *lingzhi* and floral motif is an important subject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fficial kilns and civilian kilns, and between civilian kilns in Jingdezhen and kilns in other areas, but it has long failed to attract the attention of researchers - probably because it was usually produced for use in ordinary households. Such ceramic works have been found at various Korean and Japanese archaeological sites, too, but there was a lack of knowledge about the date and location of their production and the means by which they were transported to these sites.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etailed discussion about the specific aspects and characteristic features of blue-and-white porcelain ware with the *lingzhi* and floral motif based on a close examination of the records, excavations, and relics that have recently been discovered or studied.

The origin of this particular porcelain ware was revealed in connection with the discoveries made in a layer of the Jingdezhen imperial porcelain kiln, which was established

* Curator at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when China was under the rule of the Xuande Emperor (1399-1435). However, historians have discovered the name of a similar porcelain object in the list of antique collections kept by the Qing Dynasty, and now believe that the Qing imperial court made copies of the masterpieces produced at the kilns operated by the Ming Dynasty. Meanwhile, blue-and-white porcelain ware originating from the Ming imperial workshops came to enjoy great popularity among common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hereby imperial porcelain production was contracted out to civilian kiln operators and the practice of selling defective goods out to civilian markets. It is now widely held that the circulation of Jingdezhen products outside the capital during the mid-Qing period led to the production of blue-and-white porcelain wares at the civilian kilns in Fujian and, as potters migrated, to the gradual establishment of more civilian kilns across the southern areas.

The Chinese blue-and-white porcelain wares with the *lingzhi* and floral motif discovered in Korea and Japan were largely produced at the civilian kilns in Jingdezhen after the mid-18th century. Such products were actively copied in many places around the two countries, but the changes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resulted in widely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Korea, for instance, Chinese products were usually consumed by the royal households and government agencies, whereas Korean products from the Bunwon-ri official kilns were circulated more widely among wealthy consumers in the capital. In Japan, however, similar porcelain wares were produced at the kilns in Hizen, Seto and Mino during or after the mid-18th century for consumption by ordinary people. Some of the more modern versions of these Japanese products have been discovered at a number of archaeological sites in Korea. Having originated at the imperial kilns of the Ming Dynasty under the Xuande Emperor, blue-and-white porcelain with the *lingzhi* and floral motif continued to prosper for about 500 years until the emergence of its modern version from the kilns in Japan, leading to a great diversity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ir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